

# 간호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이 대인관계능력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이금주\*

여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The Effects of Club Activities on Communication Skill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Nursing Students

Lee Kyem Ju\*

Department of Nursing, Yeosu Institute of Technology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요약** 본 연구는 K시의 간호대학생 동아리 활동이 대인관계능력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행되었다. 자료수집은 2022년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간호학과 재학생 101명 중 동아리 활동 참여자는 78명이었다. 자료 분석은 기술통계, t-test,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대인관계능력의 평균 점수는  $3.97 \pm 0.47$ 점, 심리적 안녕감의 점수는  $3.62 \pm 0.44$ 점이었다.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의 영향 요인은 환경지배( $\beta = .27, p = .010$ ), 긍정적 대인관계( $\beta = .23, p = .026$ )순으로 총변화량의 46.8%를 설명하였고,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 요인에서는 의사소통( $\beta = .29, p = .009$ )이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총 변화량의 47%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 시키기 위한 교육적 전략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키워드** : 간호 대학생, 동아리 활동, 대인관계능력, 심리적 안녕감

**Abstract** This study was therefore undertaken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lub activities on the communication skill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nursing students. Convenience sampling method was applied for 101 students enrolled in the nursing department of university in K city, of which 78 subjects participated in club activities. Data was collected from October 31 to November 30, 2022.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The average score for Communication skill was  $3.97 \pm 0.47$ , psychological well-being values was  $3.62 \pm 0.44$ . Statistically communication skill showed a significantly environmental control( $\beta = .27, p = .010$ ) and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eta = .23, p = .026$ ) accounting for 46.8% of the total chang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e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communication( $\beta = .29, p = .009$ ) accounting for 47% of the total chang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educational strategies and programs are needed to improve the communication skil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Club activities, Communication skills, Psychological well-being

\*Corresponding Author : Lee Kyem Ju(kyemju74@hanmail.net)

Received August 29, 2023

Accepted September 20, 2023

Revised September 4, 2023

Published September 28, 2023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은 학문과 개인적인 교육을 받으며 지적 기능 발달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동화되고 적응에 필요한 인격을 형성하는 곳이다. 대학생들은 사회로 진출하기 전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사회에 나가 잘 적응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대학에서는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 교육과정 외의 비교과 활동 모임인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며, 성인으로 들어가는 대학생들에게 정서적 발달을 돕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한다[1].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다양한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잘 대처하고 대학 생활에 자신감과 만족감을 가지며 적응하면 다행이지만, 반면에 그렇지 못하게 되면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과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고 사회화 능력을 향상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영역 중의 하나가 동아리 활동이다[2].

대학에서의 동아리 활동은 타인과 다양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함양시키며 대학생들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3]. 그리고, 대학에서의 동아리 활동을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더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학 생활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4]. 대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에 대한 태도와 능력을 습득하고, 대인관계 기술 향상 및 개인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받고 있다. 또한, 동아리 활동은 성별, 나이, 학년의 제약에서 벗어나 관심 분야에 따라 모임을 형성하므로 이를 통해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게 한다[5]. 대인관계 능력이란 타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 상황을 해결하고 협력을 통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발전시키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6]. 대인관계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접촉하는 사람들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7], 원만한 대인관계능력은 간호 실무현장에서 대상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8]. 그리고 간호사 업무의 대부분은 조직 내의 다양한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협조적인 대인관계 능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간호대학생들이 향후 간호사로서 간호업무를 수행할 때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갈등 대응 능력을 증진해 나가기 위해

대인관계 능력 함양을 위한 방안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또한, 대학에서의 만족스런 학교생활을 통해 자기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로 진입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서 요인으로 심리적 안녕감이 강조되고 있다. 심리적 안녕감은 대학 생활 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주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포괄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9-10].

심리적 안녕감은 일상생활의 사건에 사람들이 적응하면서 느끼는 정서로 자기 삶에 만족하는 동시에 행복감 또는 총체적 감정을 말한다[11].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이 속한 환경에서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자율성을 가지고 행동을 조절해 나가는 심리적 태도로[11]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취업 스트레스를 줄여주고[12], 자율성과 긍정적 대인관계,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4]. 또한, 대학생의 건강과 행복감에도 관련성이 있어[15] 이러한 의미에서 심리적 안녕감은 간호대학생들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 조절에도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15]. 대학생들은 대학 생활에서 다양한 대인관계 갈등과 여러 종류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는 정신건강을 위협받게 되어 심리적 안녕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17]. 따라서 대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안녕 상태에서 대학 생활에 대한 적응을 높일 수 있는 모색이 필요하다. 대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대학 생활 적응[17, 18, 20]과 진로 적응[19]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간호대학생의 동아리 활동 참여 정도가 대인관계 능력 향상과 심리적 안녕감 정도를 설명하는 연구는 매우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이 대인관계 능력 향상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대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높이는 것은 물론, 향후 임상 현장에서 사회 친화적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동아리 활동, 대인관계능력 및 심리적 안녕감을 조사하고 동아리 활동이 대인관계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인관계능력, 심리적 안녕감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 대인관계능력 및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동아리 활동이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동아리 활동, 대인관계능력 및 심리적 안녕감을 조사하고, 동아리 참여 활동이 대인관계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표본의 크기는  $G * Power 3.1.9.7$  program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대상자 수를 산출하기 위해 문헌[21]을 참고하여 유의수준 .05, 효과 크기(f) 0.30, 검정력 .90조건에서 산출된 88명에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06명을 산출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01부를 분석하였다. 이중 동아리 참여대상자는 78명이었다.

### 2.3 연구 도구

#### 2.3.1 대인관계 능력

본 연구에서의 대인관계능력은 Schlein과 Guerny[22]가 개발하고, Moon[23]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으로 구성되었다. 이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83이었고, 장혜숙[2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9이었다.

#### 2.3.2 심리적 안녕감

본 연구에서의 심리적 안녕감은 Ryff가 개발하고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12]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환경지배력, 개인적 성장, 자아 수용, 긍정적 대인

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의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높은 점수일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83이었고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7이었다.

### 2.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WIN23.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 및 대인관계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의 점수는 t-test를 이용하여 두 집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동아리 활동이 대인관계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인관계능력, 심리적안녕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성이 94명(93.1%)으로 많았으며, 학년은 4학년 학생으로 동아리 활동을 참여하는 대상자는 78명(77.2%)이었다. 동아리 활동에 참여 하는 대상자의 참여 동기는 진로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가 50명(49.5%)이었고, 활동 유형은 사회활동 참여가 57명(56.4%)이었다. 이들의 참여 빈도는 월 2회가 43명(42.6%)이었고 활동 지속시간은 1년 이상 참여가 50명(49.5%)이었다. 동아리 회원의 역할은 일반회원이 65명(64.4%)이었고, 활동수는 1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55명(45.5%)으로 동아리 참여 학생이 비 참여학생 보다 더 많았다. 동아리 활동 참여 동기는 진로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가 50명(49.5%)이었고, 활동 유형은 사회활동 참여가 57명(56.4%)이었다. 동아리 활동 참여 빈도는 월 2회가 43명(42.6%)이었고, 활동 지속시간은 1년 이상이 50명(49.5%)이었으며, 동아리 역할은 일반회원이 65명(64.4%), 임원이 12명(11.9%)이었다. 동아리 활동 수는 1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55명(45.5%)으로 많았다.

동아리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는 학과 전공 만족도와 핵심 간호술 수행 만족도가 89명(88.1%)으로 동일하였

고, 임상실습 만족도는 85명(84.21%)이었으며 학교생활 만족도는 81명(80.2%)이었다.

대인관계 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97 \pm 0.47$ 점이며, 하위요인에서 친근감은  $4.13 \pm 0.52$ 점으로 가장 높았으

며, 개방성이  $3.82 \pm 0.59$ 점으로 가장 낮았다.

심리적 안녕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62 \pm 0.44$ 점이며 하위요인에서 삶의 목적은  $3.84 \pm 0.76$ 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아 수용이  $3.35 \pm 0.52$ 점으로 가장 낮았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ommunication skill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subjects** (N=101)

Variable	Categories	n (%) M $\pm$ SD
Gender	Male	7(6.9)
	Female	94(93.1)
Grade	4th	101명
Activity	Have	78(77.2)
	Haven't	23(22.8)
Motivation to participate	Get help with your career	50(49.5)
	College life adaptation	15(14.9)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friendly;	13(12.9)
	Haven't	23(22.8)
Club activity type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57(56.4)
	Academic fields (reading, creation, writing, etc.)	13(13.9)
	Arts (Band, Vocal, Dance, etc.)	8(7.9)
	Haven't	23(22.8)
Participating time	1/week	32(31.7)
	2/week	3(3.0)
	2/month	43(42.6)
	Haven't	23(22.8)
Club activity duration	1st semester	26(25.7)
	Over 1 year	50(49.5)
	more than 2 years	2(2.0)
	Haven't	23(22.8)
Club role	Executives	12(11.9)
	member	65(64.4)
	Haven't	23(22.8)
Join a club	One	55(54.5)
	2 or more	23(22.8)
	Haven't	23(22.8)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89(88.1)
	Non-satisfaction	12(11.9)
School satisfaction	Satisfaction	81(80.2)
	Non-satisfaction	20(19.8)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85(84.2)
	Non-satisfaction	15(14.9)
Core Nursing Skills Satisfaction	Satisfaction	89(88.1)
	Non-satisfaction	12(11.9)
Hhealth status	Good	98(97)
	Bad	3(3.0)
Communication skill	Communication	$3.96 \pm 0.79$
	Trust	$4.02 \pm 0.53$
	Sensibility	$3.83 \pm 0.65$
	Openness	$3.82 \pm 0.59$
	Understanding	$4.07 \pm 0.54$
	Friendliness	$4.13 \pm 0.52$
Psychological well-being	Total	$3.97 \pm 0.47$
	Environmental control	$3.73 \pm 0.43$
	Personal growth	$3.55 \pm 0.63$
	Self acceptance	$3.35 \pm 0.52$
	Positive relationship with others	$3.81 \pm 0.69$
	Autonomy	$3.43 \pm 0.55$
	Purpose of life	$3.84 \pm 0.76$
Total	$3.62 \pm 0.44$	

### 3.2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른 대상자의 학교생활 만족도 및 대인관계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른 대상자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동아리가 있는 대상자가 1.52±.51점으로 동아리가 없는 대상자 1.20±.40점보다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72$   $p=.010$ )(Table 2).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 및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보면, 대인관계 능력은 전체는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라 차이는 없었으나 하위항목별로는 민감성이 동아리가 있는 대상자가 4.21±.75점, 동아리가 없는 대상자는 4.00±.54점으로 동아리가 있는 대상자의 민감성이 높았다. 심리적 안녕감은 동아리가 있는 대상자가 3.91±.70점, 동아리가 없는 대상자가 3.61±.71점으로 동아리가 있는 대상자의 긍정적 대인관계의 점수가 높았다( $t=.67$   $p=.504$ ).

### 3.3 동아리 활동이 대상자의 대인관계 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동아리 활동이 대상자의 대인관계 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Table 3).

다중공선성 확인 결과 공차 한계(Tolerance)가 대인관계능력 모형은 0.33~ 0.45, 심리적 안녕감 모형에서는

0.30~0.5로 1.0 이하였으며, 분산 팽창인자는 각각 1.78~2.39, 1.42~3.31로 기준값인 10 이하로 나타나 문제가 없었다.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2개의 회귀 모형이 설정되었다. 모형 1은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변수로, 모형 2는 심리적 안녕감을 통제된 후 동아리 활동 참여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 1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환경지배( $\beta=.27$ ,  $p=.010$ ), 긍정적 대인관계( $\beta=.23$ ,  $p=.026$ )가 유의한 예측 변인이었으며, 동아리 활동 참여가 추가 투입된 모형 2에서 설명력은 향상하였으며( $R^2$  변화량=.505,  $F=13.55$ ,  $p<.001$ ) 본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46.8%였다.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모형 1은 대인관계 능력을 예측변수로, 모형 2는 동아리 활동 참여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 1에서 대인관계 능력의 하위요인 중 의사소통( $\beta=.29$ ,  $p=.009$ ), 이해성( $\beta=.25$ ,  $p=.022$ )이 유의한 예측 변인이었으며, 동아리 활동 참여가 추가 투입된 모형 2에서의 설명력은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R^2$  변화량=.507,  $F=13.682$ ,  $p<.001$ ) 본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47%였다.

Table 2. Differences in School life satisfaction, communication skill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y club activity (N=101)

Characteristics	Club activity (M±SD)		t(p)	
	Have (n=78)	None (n=23)		
Major satisfaction	1.26±.44	1.21±.41	0.42(.670)	
School satisfaction	1.52±.51	1.20±.40	2.72(.010)**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1.12±.33	1.08±.28	.53(.595)	
Core Nursing Skills Satisfaction	1.30±.46	1.13±.34	1.99(.052)	
Health status	1.20±.40	1.08±.28	2.53(.013)**	
Communication skill	Communication	4.13±.86	4.13±.65	.03(.970)
	Trust	4.08±.57	4.05±.52	.21(.832)
	Sensibility	4.21±.75	4.00±.54	1.29(.207)
	Openness	3.95±.52	3.92±.62	.26(.792)
	Understanding	4.17±.66	4.07±.53	.72(.474)
	Friendliness	4.21±.51	4.10±.63	.87(.386)
	Total	4.10±.56	4.07±.44	.27(.781)
Psychological well-being	Environmental control	3.57±.61	3.56±.57	.086(.931)
	Personal growth	3.62±.61	3.51±.74	.69(.488)
	Self acceptance	3.53±.58	3.38±.63	1.07(.285)
	Positive relationship with others	3.91±.70	3.61±.71	1.75(.083)
	Autonomy	3.52±.49	3.41±.57	.84(.399)
	Purpose of life	3.90±.75	3.84±.82	.30(.758)
	Total	3.65±.48	3.57±.57	.67(.504)

$p^*0.1$ ,  $p^{**}0.05$ ,  $p^{***}0.01$

Table 3. The influence of club activities on communication skil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N=101)

Variables		Model I				Model II				
		B	$\beta$	t	p	B	$\beta$	t	p	VIF
Communication skill										
Psychological well-being	EC	.21	.27	2.63	.010	.21	.26	2.53	.013	1.96
	PG.	.07	.10	.84	.373	.02	.11	.94	.348	2.76
	SA	.04	.05	.45	.651	.05	.06	.60	.547	2.44
	PR	.15	.23	2.22	.026	.16	.25	2.43	.017	2.07
	A	.03	.04	.56	.60	.07	.03	.35	.721	1.40
	P	.09	.15	1.18	.23	.07	.14	1.06	.289	3.35
club activities						.09	.08	1.13	.258	1.08
Adjusted R <sup>2</sup>										
R <sup>2</sup>										
F (p)										
					Durbin-Watson	2.120				
Psychological well-being										
Communication skill	C	.21	.29	2.63	.009	.21	.30	2.69	.008	2.39
	T	.10	.11	1.02	.300	.11	.12	1.12	.265	2.21
	S	.02	.02	.25	.769	.04	.05	.57	.565	1.77
	O	.03	.03	.29	.773	.01	.05	.11	.906	3.03
	U	.23	.25	2.38	.022	.24	.27	2.47	.015	2.35
	F	.09	.10	.93	.35	.07	.06	.64	.521	2.62
club activities						.10	.00	1.17	.243	1.11
Adjusted R <sup>2</sup>										
R <sup>2</sup>										
F (p)										
					Durbin-Watson	1.942				

EC, environmental control; PG, personal growth; SA, self acceptance; PR, positive relationship with others  
A, autonomy; P, purpose of life; C, communication; T, trust; S, sensibility; O, openness; U, understanding; F, friendliness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이 대인관계능력 및 심리적 안녕감 증진에서 기여도와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미비하여 직접 비교는 가능하지 않지만 본 연구가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심리적 안녕감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비참여 학생들보다 학교생활 만족도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동아리 활동 참여가 비참여 학생들보다 대학 생활 만족도,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선행 연구[23]와 유사한 결과이다. 간호는 임상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관계를 형성하면서 수행되므로 본 연구의 대상 학년이 높은 4학년의 경우,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년으로 특히 전공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간호학과 전공 만족도와 대인관계는 상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4.07점이었다.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ang[29]의 연구에서는 평균 3.74점으로 본 연구 결과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동아리 활동 대상자들의 심리적 안녕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65점이었다.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전종임과 김남초[27]의 연구 결과인 3.42점과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3.3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이 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비슷하거나 더 낮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28]와는 차이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동아리 활동 참여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는 시작 단계이므로 추후 학과와 학년의 대상자를 늘리고 대표성 있는 표본을 선정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인관계 능력의 하위요인별로는, 친근감과 민감성(4.21점)이 가장 높았으며, 이해성(4.17점), 의사소통(4.13점), 신뢰감(4.08점), 개방성(3.9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30]의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의 개방성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

은 결과는 대상자의 학년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강의로 수업이 대체 되어 대학 생활에서의 선배 및 동기들과의 비대면[25]관계가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 향상은 간호 서비스 질 향상에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어[25].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지, 정서, 행동 측면이 강조되며 상대방에게 공감, 경청 등의 기법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는 프로그램[25]이 더욱 필요하다. 또한, 간호사의 대인관계능력은 임상 현장에서 대상자들과 치료적 관계를 형성 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25], 향후 간호대학생들이 다양한 임상 실무 속에서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능동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별로는 삶의 목적과 긍정적 대인관계의 점수가 동일하게 높았고, 환경지배, 개인 성장, 자율성의 점수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은 긍정적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자신에 대한 확신감과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킨다고 하여[23] 정적인 관계를 보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의 하위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상대적으로 의사소통과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이해성이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이는 동아리 활동이 대인관계 향상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31]와 임상 실무현장에서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과도 일치[31]하였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동아리 활동과 관련하여 대인관계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는 많지 않아 향후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에서는 환경적 지배, 개인적 성장, 자아 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이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30]와 차이가 있었으며 본 연구의 대상 학년과 상이하여 심리적 안녕감의 특성이 전반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은 대학 생활 적응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18]로 비추어 볼 때, 대학생 시기의 적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 생활 및 학과 적응을 위한 다양한 실질적 자발적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및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인관계 능력의 영향 요인은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환경지배,

긍정적 대인관계가 유의한 영향 요인이었으며, 동아리 활동 참여를 더하여 총설명력은 46.8%였다.

간호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능력이라고 한 선행연구[33]와 유사한 결과로 대인관계 능력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도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인관계능력은 개인 성격, 대인관계, 심리 상태에 영향을 받아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므로 지속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해 동료와 성공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바람직한 대인관계능력과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고학년보다 저학년부터 동아리 활동의 대인관계 능력 향상프로그램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 요인은 대인관계의 하위요인 중 의사소통이 유의한 영향 요인이었으며, 동아리 활동 참여를 더하여 총설명력은 47%였다. 김종임[30]의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긍정적 대인관계로 설명력은 13.0%이었으며 본 연구 결과가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른 대인관계능력 및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적 전략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이 대인관계능력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인관계능력은 의사소통과 이해성에 유의한 영향 요인이었고, 심리적 안녕감은 환경지배와 긍정적 대인관계가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간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 학과와 학년이 적어 동아리 활동이 대인관계 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대단위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 REFERENCES

- [1] Yoon-Ju Cho, Park, Jang-Hee.(2006). Romantic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Human Ecology Research*, 44 (7), 113-124.

- [2] Kim, Hong-Seo, Park, Ye-Sool.(2010). Differences in Campus Life Satisfaction and Self-Achievement based on Sport Club Participation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 34(3), 43-54.
- [3] Baek, S. H.(2020). The effects of experience of extracurricular programs on the interpersonal competencies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4(1), 259-282.
- [4] Kim, Y.M, H.W.(2010).Influence of Club Leisure Activity on Peer Relationship,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Lesure, Recreation & Park*,34(2), 35-46.
- [5] Ryu, H.-S., & Choi, B.-S. (2021). Impact of Positive Thinking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n Communication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38(6), 1596.  
DOI : 10.12925/jkocs.2021.38.6.1596
- [6] Kon Hee Kim.(2014). Correlation of Stress - coping, Humor Sense, and Adaptation to College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3), 301-313.
- [7] Yang, Y. K. (2018). Influences of communication skill and interpersonal ability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5(2), 99-108.
- [8] Kim, K.Y. Seon Y. (2019). Factors influencing Communication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JLCCI)*, 19(3), 967-981.  
DOI :10.22251/jlcci.2019.19.3.967
- [9] Kim, E. A., & Jang, K. S. (2012).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2), 312-322.  
DOI : 10.5977/jkasne.2012.18.2.312
- [10] Jin, J. I., & Kim, N. C. (2017). Grit, Academic 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3(2), 175-183. DOI : 10.5977/jkasne.2012.18.2.312
- [11] Ryff, C. D. (1989). Beyond Ponce de Leon and life satisfaction: New directions in quest of successful ag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2(1),35-55.  
DOI : 10.1177/016502548901200102
- [12] Kim, Myoung So , Kim, Hye Won & Kyeong Ho Cha. (2001). Analyses on the Construct of Psychological Well - Being ( PWB ) of Korean Male and Female Adult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5(2), 19-39.
- [13] Kim,J.I. (2018).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Self-Leadership, Psychological Well-being to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College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2), 574-583.  
DOI : 10.5762/KAIS.2018.19.12.574
- [14] Lyubomirsky, S., Tkach, C., & Dimatteo, M. R. (2006).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Happiness and Self-Esteem? *Social Indicators Research*, 78(3),363-404.  
<http://www.jstor.org/stable/27522615>
- [15] Kwon, M., & Kim, S. A. (2022).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2(5), 62-70.  
DOI : 10.22156/CS4SMB.2022.12.05.062
- [16] Yi, J. P., Smith, R. E., & Vitaliano, P. P. (2005). Stress-Resilience, Illness, and Coping: A Person-Focused Investigation of Young Women Athlete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28(3), 257-265.  
DOI : 10.1007/s10865-005-4662-1
- [17] Song, M. S., & Lee, I. S. (2020). The Effects of Club Activities on Communication Skills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8), 485-494.  
DOI : 10.5762/KAIS.2020.21.8.485
- [18] Ham, S.M. & Lee, J.H. (2020). The Effects of Club Activities to College Life Adaptation: Based on the Mediator of Social Support and Grit.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2), 327-348.  
DOI : 10.22251/jlcci.2020.20.12.327
- [19] Hwang, S. H., Joo, Na Y, Jo H. N.(2019). Exploration on Metacognition and Career

- Adaptability in Participants of College Extracurricular Club Activity. *The Korean Association of General Education*, 13(1), 293-320.
- [20] Byun, E. K. & Kim, Y. J. (2022). Effect of Perceived Stress and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8(3), 521-528. DOI : 10.17703/JCCT.2022.8.3.521
- [21] Schlein, A., Guerney, B. G., & Stover, L. (1971). Relationship enhancement. Sanfrancisco, CA: Josey-Bass.
- [22] S. M. Moon, "A Study on the Effect of Human Relations Training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Vol.19, No.2, pp.195-203, 1980.
- [23] Lee, S. J, Part, Y, H, Cho, O. J.(2017). The Influence of Soccer Club Activities by University Students on their Physical Self-efficacy and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Sport*, 15(3), 491-500.
- [24] Choi, H. S. (2021). A Study on the Non-face-to-face Teaching Experience of College Freshmen due to Covid-19. *The Korean Association of General Education*, 15(1), 273-286. DOI : 10.46392/kjge.2021.15.1.273
- [25] Lee, M. R. & Nam, M.H. (2014).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the Influencing Factor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6), 509-517. DOI : 10.14400/JDC.2014.12.6.509
- [26] Yoo, C. S., Kim, J. H., Kim, M. Y., Kim, S. J., Kim, Y. S., Kim, J. A., ... & Choi, H. K. (2012). Factors related to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of new nurse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8(2), 239-250. DOI : 10.22650/JKCN.2012.18.2.239
- [27] Jin., J I., & Kim., N. C. (2017). Grit, Academic 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3(2), 175-183. DOI : 10.5977/jkasne.2017.23.2.175
- [28] Choi, Y. J., & Sung, Y. H. (2013). Psychological well-being, perceived health status,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9(5), 589-598. DOI : 10.11111/jkana.2013.19.5.589
- [29] Kang, S. (2020). Convergence Study on the Effects of Humanistic Literacy and Empathy Abilit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1), 35-43. DOI : 10.22156/CS4SMB.2020.10.01.035
- [30] Kim. J. I. (2018).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Self-Leadership, Psychological Well-being to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College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2), 574-583. DOI : 10.5762/KAIS.2018.19.12.574
- [31] Bochner, A. P., & Kelly, C. W. (1974). Interpersonal competence: *Rationale, philosophy, and implementation of a conceptual framework*. DOI : 10.1080/03634527409378103
- [32] Mi-Hye Lim.(2018).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 Differentiation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9), 225-233. DOI : 10.5762/KAIS.2018.19.9.225.

이금주(Kyem-Ju Lee)

[정회원]



- 2010년 8월 : 고려대학교 간호교육학과(간호교육석사)
- 2017년 8월 : 고려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22년 3월~현재 : 여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기본간호, 성인간호, 지역사회간호
- E-Mail : kyemju74@hanmail.net